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6호 [무게 제25920호] 주제 107 (2018)년 2월 15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조 외교단과 무관단, 일본주체사상연구회 대표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과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에게 외교단을 대표하여 함 비영 총 행남사회의 공화국 특명전임대사와 알렉산드르 마 페고라 로씨야연방 특명전임대사가, 인민

무력상인 특근대장 박영식동지에게 무관단 단장인 알렉세이 바르부초프 로씨야연방대사관 무관이 전달하였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인민회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모셔져있었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일본주체사상연구회 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14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군마 연락회 부대표 후지이 아시히코단장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바랍시다》라는 글말이 모셔져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14일 조선평화통일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조선녀성과 반대하는 일본부인연락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일조학술교육교류협회, 일조우호회로시마현인의 회, 중국 김일성기념학교,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송화가죽,

일본 전 부수상 가네마루 심의 가족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위원장 다미인 그르노나,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화대성 에파도로 파란다협회 위원장 홀리 로 알레스레로스 에스틴, 팔류비아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케르난도 알레스, 에파도로 김일성주석회 회 위원회

서기장 다니엘 알바레스 벨라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시다》 등의 글말이 모셔져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해외연고자가족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국제주의전사 아. 페. 노비 첸고 가족, 항일혁명렬영연고자

김순옥가족,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14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모셔져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나이제리아단체들이 인터넷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김정일대원수각하 탄생 76돐경축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준비위원회가 1월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그의 탄생 76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준비위원회가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러 지역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공동감이 되기 위하여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 일하기운동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99명의 소년단원들에게 김정일소년영예상이 수여되었다.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 수여식 진행

민족최대의 정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이 모범적인 초급청년동맹위원회를과 청년동맹일군들, 청년동맹원들, 소년단원들에게 수여되었다.
수여식이 14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동맹일군들, 청년동맹원들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이 수여되었다.
이러 지역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공동감이 되기 위하여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 일하기운동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99명의 소년단원들에게 김정일소년영예상이 수여되었다.

수여식에서는 김의도론들이 발표되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가며 앞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절세 위인들을 블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연구 보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새기와 더불어》,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명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비롯한 절세 위인들의 블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 독보회가 로씨야, 스위스, 오스트리아, 마자르, 에리모리아, 앙골라에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모스크바주체사상연

구소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히 해답을 주는 수많은 문헌들을 발표하시었다.
그들의 저서들은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어있다.
조선이 거쳐온 어떠한 지난 세기 말업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를 수호할수 있었던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의 요소를 일관하게 견지해왔기때문이다.
우르도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실천에 구현하여야 한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위대한 주체사상은 세기를 이어 진보적인영화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로 되었고,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공부하신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오스트리아 교묘스트리아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청년소조 책임자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사상리론의 영예로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김정일각하의 혁명명령도림에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조선중앙통신】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광명성절경축 특별부르그준비위원회가 5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특별부르그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사를레스 도예모브로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 별지조준비위원회가 5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벨지조조선친선협회의 위원장 조

제프 보우위트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6일 로씨야지역사회조직 《모리노》에서 결성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로씨야연방공산당장정 25돐에 즈음하여 귀당 지도부와 전체 당원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비범을 고수하고 광범한 근로대중의 복리를 옹호하며 당대열을 강화하기 위한 귀당의 활동을 지지하고있으며 지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두 당사이에서 맺어진 친선적인 협조관계가 사회주의의 공동의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앞으로 보다 심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107(2018)년 2월 14일
평 양

산소열법용광로에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혁명적인 흥분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주체적들이 쏟아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외 부름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밀쳐들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풍이며 기질입니다.》
지난 1월 만사람의 기대와 관심속에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출산작업이 진행되었다.
용장한 산소열법용광로에서는 용암처럼 뜨거운 쇠물이 불끈거릴 뿐 아니라 쏟아져 나왔다.
성, 중앙기관과 함경북도의 일군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청진금속선련합기업소, 설비조립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파하자, 기술자들은 용암처럼 흘러나오는 우리의 주체적들을 크나큰 걱정과 흥분으로 넘쳐 바라보며 서서서로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산소열법용광로 시운전에서 성공하고 우리의 원료, 우리의 연료에 의한 쇠물명신을 시작함으로써 열강제생산의 주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이 자랑찬 성과는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을 위구전에

한사람같이 밀쳐나선 우리의 비대한 과하자, 기술자들과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북방의 철의 기치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대규모 야강기기로 전면시켜주시고 나라의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강명적 과업들을 제시해주시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열강제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산소열법용광로와 대형산소분리기 의 구조도를 품소 보아주시고 건설을 제기일내에 끝내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당시도조에서는 함경북도당위원회와의 편지함에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열강제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금속공업 부문과 편관단위 일군, 로동자, 기술자들을 힘있게 불리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실로 꽃피워나갈 불라는 총성 울고 공사장으로 달려나온 각 단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차광의 첫살을 막은 그날부터 대동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날이마다 불꽃을 뿜는 현신을 일으켜나갔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 파하자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수만mm에 달하는 방대한

토광지위를 짧은 기간에 채취하고 개발한 광맥들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공격전을 연속 돌리는데 10여일은 걸려야 한다는 로씨야와 대동강, 대형산소분리기 공기용압기초장크리드기틀 며칠동안에 끝내는 과업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기 불 높이 불고 내부에비를 적극 용원함으로써 펼쳐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울 기세로 무비하고 수심중에 달하는 대상물들을 자체로 보강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어렵고 방대한 석회쇄소로해제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여 계획된 기일안에 열강제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할수 있는 불길기술적담보를 마련해놓았다.
당지도소조 성원들과 함경북도당위원회 비호한 중앙과 도의 일군들은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대과과 성, 중앙기관들과의 편지를 강화하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갔다.
당지도소조에서는 주체대상공산들이 마감단계에 이른데 맞게 공사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드는 한편 편관단위들과의 편지를 강화하여 많은 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게 하였다.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건설시회부를 조직하고 도안의 역량을 동원하여 도로포장공과 목지조성, 나무심기를 짧은 시일안에 완수해나갔다.
특히 이들은 설비의 장치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여 수많은 부속물과공과수

주체식물이 쏟아진다

백대의 설비장비모수를 제때에 하고 2대의 산소분리기에 대한 개열명각시행을 진행하여 빠른 시일안에 산소생산에 들어갈수 있는 전망을 열어나갔다.
청진금속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대형산소조립기설치를 위한 공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새로운 시공방법들을 받아들여 산소분리기장치를 새로 건설하였다.
그리고 여러대의 대형포크와 러퍼기를 설치하였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주를 달려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었다. 이들은 배공장과 지광장을 비롯하여 여러 지층의 건축자재

공사도 맡아 수행하여 전반적인 공사를 다그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공사의 선두자를 바로 정하고 대중과 한데 어리가 되어 대형산소분리기의 상부장착과 평행기를 비롯한 중요설비조립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체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관망들의 암시행을 보장하고 모든 설비장치들과 자재요소들의 무결함을 보장하여 산소생산에 지장이 없게 하였다.
장질설계연구소와 함흥화력제연구소를 비롯한 기술집단은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

하여 대형설비들의 조직과 보수, 부속물과 자재보장, 불공수송을 책임적으로 하였다.
각시 당조직들과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열강제생산의 주체화실현에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들을 물질방면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중앙과 도의 예술인들과 방송원들, 가운데출선대원들도 건설장에 달려나와 화선시경제선물을 힘있게 밀려 로동자, 기술자들을 위훈창조로 고무추동해주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해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산소열법용광로가 일떠서고 주체의 물이 쏟아짐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밑천이 마련되었으며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완성하는데서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되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조국의 부강번영과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

어미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호모의 마음 조국강산에 대하여 흐르는 2월

창조와 건설의 거장

은 나라 천만민은 남이 갈수록 더해 가는 그리움속에 조국과 혁명, 시대의 역사에 쌓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 보고 있다.

우리 장군님은 창조와 건설의 거장! 진정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병도의 력사는 그대로 세기적인 창조와 건설의 영웅사사이다.

경에 하는 최고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므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항쟁을 쫓고 버티시어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겸손의 별꽃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비범한 예지와 창조력을 힘으로 지니시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해나갈 창조형의 위인이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기쁨은 창조에 있다는 좌우 명을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투쟁에 나선 혁명가들이 자기 삶을 무엇에 바쳐야 하며 어디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아야 하는가를 실천적방법으로 보여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병도따라 위대한 창조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 인민이 창조형의 위인이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기쁨은 창조에 있다는 좌우 명을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투쟁에 나선 혁명가들이 자기 삶을 무엇에 바쳐야 하며 어디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아야 하는가를 실천적방법으로 보여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병도따라 위대한 창조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 인민이 창조형의 위인이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기쁨은 창조에 있다는 좌우 명을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투쟁에 나선 혁명가들이 자기 삶을 무엇에 바쳐야 하며 어디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아야 하는가를 실천적방법으로 보여주셨다.

을 평생의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셨으며 삶의 방식으로도 삼으셨다.

역사에는 위인들이 많았지만 우리 장군님께만 새것을 창조하여 인민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여기시고 거기에서 삶의 무한한 기쁨을 느낀 위인은 일찍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조와 건설의 영웅사사이다. 경에 하는 최고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므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항쟁을 쫓고 버티시어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겸손의 별꽃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비범한 예지와 창조력을 힘으로 지니시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해나갈 창조형의 위인이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기쁨은 창조에 있다는 좌우 명을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투쟁에 나선 혁명가들이 자기 삶을 무엇에 바쳐야 하며 어디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아야 하는가를 실천적방법으로 보여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병도따라 위대한 창조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 인민이 창조형의 위인이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기쁨은 창조에 있다는 좌우 명을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투쟁에 나선 혁명가들이 자기 삶을 무엇에 바쳐야 하며 어디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아야 하는가를 실천적방법으로 보여주셨다.

최상의 수준으로 창조하도록 이끄시고 남들같이 염두도 넣지 않는 거대한 변혁도 대담하고 용이 크게 독특한 방식으로 실현해나가도록 하시었다.

우리 장군님의 비상한 창조력, 실천력은 그대로 우리 조국이 년대와 새기를 주름잡으며 내달리게 하는 비약의 나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병도따라 우리는 1970년대와 1980년대대를 눈부신 창조의 기적으로 장식 하였으며 만년대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세인의 정면을 지배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승고한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어느 한 순간도 침체와 답보를 모르시며 역사에 전후무후한 창조와 건설의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나가지었다.

창조, 이 말의 참뜻을 되새길 때면 역사상 류에는 그나마 시련속에서 우리 조국이 어떻게 무한의 길을 열어나갔으며 무엇으로 하여 그리될 수 있었는가를 돌이켜보게 된다.

나라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인민생활향상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 나가기 위한 거대한 투쟁을 전두 지휘하시며 새로운 시대상황을 창조하시고 한나라에 성강의 풍파, 파란의 홍화라고 표현되는 돌풍이 닥쳐오면 한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 실력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보았을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병도따라 우리는 1970년대와 1980년대대를 눈부신 창조의 기적으로 장식 하였으며 만년대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세인의 정면을 지배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싸이 모시고 일하는 한 일꾼의 이 마음 그대의 심정이 아니었나.

창조, 이 말의 참뜻을 되새길 때면 역사상 류에는 그나마 시련속에서 우리 조국이 어떻게 무한의 길을 열어나갔으며 무엇으로 하여 그리될 수 있었는가를 돌이켜보게 된다.

나라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인민생활향상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 나가기 위한 거대한 투쟁을 전두 지휘하시며 새로운 시대상황을 창조하시고 한나라에 성강의 풍파, 파란의 홍화라고 표현되는 돌풍이 닥쳐오면 한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 실력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보았을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병도따라 우리는 1970년대와 1980년대대를 눈부신 창조의 기적으로 장식 하였으며 만년대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세인의 정면을 지배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싸이 모시고 일하는 한 일꾼의 이 마음 그대의 심정이 아니었나.

창조, 이 말의 참뜻을 되새길 때면 역사상 류에는 그나마 시련속에서 우리 조국이 어떻게 무한의 길을 열어나갔으며 무엇으로 하여 그리될 수 있었는가를 돌이켜보게 된다.

나라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인민생활향상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 나가기 위한 거대한 투쟁을 전두 지휘하시며 새로운 시대상황을 창조하시고 한나라에 성강의 풍파, 파란의 홍화라고 표현되는 돌풍이 닥쳐오면 한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 실력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보았을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병도따라 우리는 1970년대와 1980년대대를 눈부신 창조의 기적으로 장식 하였으며 만년대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세인의 정면을 지배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러한 기준을 내세우시고 거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지었다.

오늘뿐 아니라 먼 후날에 가셔도 손색이 없게 창조하는 사람이 미래에 사랑받는 사람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병도의 력사를 그대로 세기적인 창조와 건설의 영웅사사이다. 경에 하는 최고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므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항쟁을 쫓고 버티시어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겸손의 별꽃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비범한 예지와 창조력을 힘으로 지니시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해나갈 창조형의 위인이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기쁨은 창조에 있다는 좌우 명을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투쟁에 나선 혁명가들이 자기 삶을 무엇에 바쳐야 하며 어디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아야 하는가를 실천적방법으로 보여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병도따라 위대한 창조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 인민이 창조형의 위인이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기쁨은 창조에 있다는 좌우 명을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투쟁에 나선 혁명가들이 자기 삶을 무엇에 바쳐야 하며 어디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아야 하는가를 실천적방법으로 보여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병도따라 위대한 창조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 인민이 창조형의 위인이시었다.

기발함을 여제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전념시켜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병도의 력사를 그대로 세기적인 창조와 건설의 영웅사사이다. 경에 하는 최고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므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항쟁을 쫓고 버티시어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겸손의 별꽃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비범한 예지와 창조력을 힘으로 지니시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해나갈 창조형의 위인이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기쁨은 창조에 있다는 좌우 명을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투쟁에 나선 혁명가들이 자기 삶을 무엇에 바쳐야 하며 어디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아야 하는가를 실천적방법으로 보여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병도따라 위대한 창조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 인민이 창조형의 위인이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기쁨은 창조에 있다는 좌우 명을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투쟁에 나선 혁명가들이 자기 삶을 무엇에 바쳐야 하며 어디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아야 하는가를 실천적방법으로 보여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병도따라 위대한 창조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 인민이 창조형의 위인이시었다.

고 치 환 지 첨 김 영 남 동 지 가

계속혁신, 계속진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때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원래 사회주의사회는 계속혁신, 계속진전하는 사회이며 형제와 담보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라고 가르치시었다. 모시면서 사회주의사회에는 모든것이 비상히 빨리 발전할수 있는 온갖 조건이 갖추어져있고, 우리 인민은 견고한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된 인민이 계속있는 인민이라고 강조하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남보다 몇배, 몇십배 더 빨리 달려나갈 수 있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우리 당의 계산방법

모든것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을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것은 한평생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주일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바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찍이 제시하신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인민이 배판이면 하늘의 별도 오고 똥오리 꽃을 피워야 한다...》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어제보다도 계신는지 일꾼들은 후날에 어떻게 될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이 배판이면 하늘의 별도 오고 똥오리 꽃을 피워야 한다...》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김 영 남 동 지 가

어제보다도 계신는지 일꾼들은 후날에 어떻게 될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이 배판이면 하늘의 별도 오고 똥오리 꽃을 피워야 한다...》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혁명의 고양제를 자르치고있는 삼지연군에 또 달려가고있다. 삼지연군을 세울 때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곳으로 전진시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적의지를 깊이 빛내어주시는 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태양의 력사가 잘 기록해 놓은 우리 조국의 긍지는 온 현실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만드는 우리 인민의 도덕의리성이 얼마나 숭고한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에 하는 최고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잘 꾸려 장군님의 혁명병애와 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어주시어 하여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악과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탄생소, 사회주의탄생소로 돌려보내주라 하여야 합니다.》

수령의 고귀한 혁명병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드는데 빛내어주시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세계는 참으로 숭고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금수산태양군을 주제의 최고 상징으로 훌륭히 꾸리고 수령님들의 혁명적의사가 진정성이있는 조선혁명가들로 내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온 우리 인민이다.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혁명의 고양제를 자르치고있는 삼지연군에 또 달려가고있다. 삼지연군을 세울 때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곳으로 전진시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적의지를 깊이 빛내어주시는 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태양의 력사가 잘 기록해 놓은 우리 조국의 긍지는 온 현실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만드는 우리 인민의 도덕의리성이 얼마나 숭고한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에 하는 최고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잘 꾸려 장군님의 혁명병애와 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어주시어 하여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악과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탄생소, 사회주의탄생소로 돌려보내주라 하여야 합니다.》

수령의 고귀한 혁명병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드는데 빛내어주시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세계는 참으로 숭고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금수산태양군을 주제의 최고 상징으로 훌륭히 꾸리고 수령님들의 혁명적의사가 진정성이있는 조선혁명가들로 내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온 우리 인민이다.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혁명의 고양제를 자르치고있는 삼지연군에 또 달려가고있다. 삼지연군을 세울 때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곳으로 전진시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적의지를 깊이 빛내어주시는 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태양의 력사가 잘 기록해 놓은 우리 조국의 긍지는 온 현실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만드는 우리 인민의 도덕의리성이 얼마나 숭고한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에 하는 최고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잘 꾸려 장군님의 혁명병애와 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어주시어 하여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악과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탄생소, 사회주의탄생소로 돌려보내주라 하여야 합니다.》

수령의 고귀한 혁명병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드는데 빛내어주시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세계는 참으로 숭고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금수산태양군을 주제의 최고 상징으로 훌륭히 꾸리고 수령님들의 혁명적의사가 진정성이있는 조선혁명가들로 내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온 우리 인민이다.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혁명의 고양제를 자르치고있는 삼지연군에 또 달려가고있다. 삼지연군을 세울 때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곳으로 전진시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적의지를 깊이 빛내어주시는 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태양의 력사가 잘 기록해 놓은 우리 조국의 긍지는 온 현실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만드는 우리 인민의 도덕의리성이 얼마나 숭고한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에 하는 최고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잘 꾸려 장군님의 혁명병애와 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어주시어 하여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악과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탄생소, 사회주의탄생소로 돌려보내주라 하여야 합니다.》

수령의 고귀한 혁명병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드는데 빛내어주시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세계는 참으로 숭고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금수산태양군을 주제의 최고 상징으로 훌륭히 꾸리고 수령님들의 혁명적의사가 진정성이있는 조선혁명가들로 내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온 우리 인민이다.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혁명의 고양제를 자르치고있는 삼지연군에 또 달려가고있다. 삼지연군을 세울 때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곳으로 전진시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적의지를 깊이 빛내어주시는 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태양의 력사가 잘 기록해 놓은 우리 조국의 긍지는 온 현실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만드는 우리 인민의 도덕의리성이 얼마나 숭고한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에 하는 최고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잘 꾸려 장군님의 혁명병애와 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어주시어 하여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악과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탄생소, 사회주의탄생소로 돌려보내주라 하여야 합니다.》

수령의 고귀한 혁명병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드는데 빛내어주시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세계는 참으로 숭고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금수산태양군을 주제의 최고 상징으로 훌륭히 꾸리고 수령님들의 혁명적의사가 진정성이있는 조선혁명가들로 내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온 우리 인민이다.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혁명의 고양제를 자르치고있는 삼지연군에 또 달려가고있다. 삼지연군을 세울 때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곳으로 전진시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적의지를 깊이 빛내어주시는 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태양의 력사가 잘 기록해 놓은 우리 조국의 긍지는 온 현실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만드는 우리 인민의 도덕의리성이 얼마나 숭고한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에 하는 최고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잘 꾸려 장군님의 혁명병애와 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어주시어 하여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악과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탄생소, 사회주의탄생소로 돌려보내주라 하여야 합니다.》

수령의 고귀한 혁명병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드는데 빛내어주시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세계는 참으로 숭고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금수산태양군을 주제의 최고 상징으로 훌륭히 꾸리고 수령님들의 혁명적의사가 진정성이있는 조선혁명가들로 내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온 우리 인민이다.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이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 하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6돐에 즈음하여

광명성절 경축 빙상회 개최
2월 14일 빙상관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 최희동지와 내각부총리 최광호동지, 빙상회조직위원장인 최정상기장동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 서기장 김춘식동지, 관세부분인 김근조,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

빙상회 거축전 개막

기조 대표부, 무관부, 체육인들과 인민들의 드립없는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생대한 축적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번 축전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생도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우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 에 펼쳐나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광명성절경축 빙상회 개최를 기쁘게 환영한다. 모범출연 《은반우에 울리는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부르자》, 《정일봉의 우리소리》, 《인민사랑의 노래》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선수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며서 무장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존경의 정과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를 은반우에 펼쳐보였다.
다양한 특기기술자들이 원만히 수행된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우리의 총창에 정화》가 있다. 《보편웃이》 등의 종목들은 날로 발전하는 우리의 빙상회 거축전을 잘 보여 주었다.
관람자들은 황홀하고 우아한 물동과 세지는 기교 동작을 때마다 출연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축전은 17일까지 계속 된다.

대학생 예술소조 종합공연 진행

광명성절 경축 대학생 예술소조 종합공연 《조선아 너를 빛내라》가 1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동지와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서기 박철민동지,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김고공교육사 태형철동지, 관세부분인 김근조, 평양시내 대학교직원, 학생들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무대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정숙사범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철도종합대학, 평양교원대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 정진방산금속대학 등의 대학생 예술소조원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선화와 합창 부문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라》, 대악사 《봉남산의 떠돌이》, 어은금명창 《그리움의 흰눈송이》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일찌기 봉남산마루에서 조선은 누리에 빛내어 실력시와 맹세를 다지신 때로부터 장수수신성상 조국의 통일선명파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어바이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력사가 울려

대학생 예술소조 종합공연 진행

원 조국방위에 주체교육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주시고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제강국으로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을 다진 녀성독창 《어바이장군님》, 심화 《기념사진》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선물이야기 《첫 강외》, 남성중창 《물마라 최첨단》, 짧은극 《기관사》, 제창 《우리의 문명》 등에서 출연

자들은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광명성에 얹어 내세워 주고 배움의 나라를 활짝 펼쳐 주는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건설의 개척자, 선봉대로 준비해가는 중지와 지략을 감명깊게 펼쳐 보였다.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라 역세게 자랑 대학학생들의 의지가 먹먹치는 남성중창과 합창 제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중창이야기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합창이야기 《자력갱생 기치높이 다시 한번 대고로》는 공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었다.
합창시와 합창 《김정은장군 죽음으로 사수하려라》로 끝난 공연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제강국의 평야를 활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청년대학생들의 혁명적의의를 잘 보여주었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위대성 연구 발표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6돐경축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위대성 연구발표모임이 14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순실동지, 관세부분, 녀맹일군들, 녀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평양시녀맹위원회 위원장 김인숙동지, 만경대구역 선내동 초급녀맹위원장 김정실동지, 대성구역 봉룡1동 녀맹원 김길항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승리의 깃을 밝혀주시신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시고 비범한 령도력파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만년기지를 마련하여 주신 최의의 정치가이시며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한생을 양그리 불려우신 자애로운 어바이시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에 류례없는 시련속에서 선군정치를 베푸신데로 돌이켜주시고 인민군대를 바탕으로 강하여주시는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선군정치의 힘과역량이 가슴깊게 새겨져 있는 오성산의 칼바람길과 칠명리의 험한 명길, 총평사나를 초도의 배길, 관동리의 새벽길, 사연길은 야전숙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실적을 눈물겹게 전하고있다고

모임에는 관세부분, 직맹일군들, 로동자,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인민독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하는 참가자들의 크나큰 환희와 격정이 장면에 차넘치는 속에 시시 《광명성찬가》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출연자들은 합창 《김정일동지여 드리는 노래》, 녀성4중창 《2월은 봄입니다》, 시이악기 《위대한 수령이여》 시 혁명의 선상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혁명열을 띠우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주체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시와 노래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6돐경축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시와 노래모임이 14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관세부분, 직맹일군들, 로동자,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인민독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하는 참가자들의 크나큰 환희와 격정이 장면에 차넘치는 속에 시시 《광명성찬가》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출연자들은 합창 《김정일동지여 드리는 노래》, 녀성4중창 《2월은 봄입니다》, 시이악기 《위대한 수령이여》 시 혁명의 선상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혁명열을 띠우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주체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녀성2중창 《뜨거운 봄눈》에서 세차게 불꽃 되었다.
당의 령도따라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길들이 만리마속으로 당의 전진부대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이룩해나가는 모듬제금과 직맹원들의 같은 의지를 반영한 녀성5중창 《우리를 부러워하라》, 시 《강국의 인민이어 앞으로》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열정, 강국건설을 빛내는 헌신과 포위위기가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매달려서 개척전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모듬제금과 직맹원들의 불굴의 기상을 표시한 모임은 합창 《조선의 힘》, 《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북남래권도인들의 합동시범출연 서울에서 진행

【평양 2월 14일합 조선중앙통신】북남래권도인들의 합동시범출연이 12일과 14일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조선국외 의정,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시장 등 정계, 사회계, 언론계, 기업계, 종교계의 인사들, 북남래권도관계자들, 서울시민들이 시범출연을 관람하였다.
남조선 속초에서의 합동시범출연으로 판공들을 베풀어진 북남래권도인들은 서울에서의 출연에서도 인상깊은 장면들을 펼쳤다.
우리 래권도시범단 성원들은 박력있고 짜임새 있는 시범출연과 5인회를 수형한데 이어 오선술을

에서 날렵한 동작과 드센 타격으로 맞다는 대상들을 통쾌하게 보여줌으로써 관중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다양하면서도 힘있는 특기종목들과 종합격투 종목들이 완벽하게 수행되고 정신육체적합이 최대로 발휘될 때마다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남조선래권도인들도 특출한 무도기술과 수법을 펼쳐보였다.
북과 남의 래권도인들이 함께 진행한 시범출연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어운을 남겼다.
시범출연들이 끝나자 남조선의 각계인사들이 무대에 올라 북남래권도인들을 축하해주었으며 관중들은 손뼉을 치며 오매도독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를 방문할 때마다

광명성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만경대 방문

고려유 총련 나시도본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14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만경대인기분들의 혁명활동 모습에 사색료들과 사색자들이 전신되어있는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를 찾은 그들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사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명정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를 방문할 때마다

학생소년들에게 우리 교실문학상 수여

인민독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학생소년들에게 우리 교실문학상이 수여되었다.
14일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진행된 수여모임에서는 강만성고급중학교 한명봉, 예주시 부흥초급중학교 리태복, 신의주시 남상초급중학교 김인영을 비롯하여 400여명의 학생들이 우리 교실문학상을 받았다.
이들이 상작한 동요 《대원수님 그립습니다》, 동시 《해바라기 꾀미요》, 《12월의 밝은 밤》, 수필 《기적소리 불어오》 등의 작품들은 한순간의 후회도 없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사무치는 그리움과 깨끗한 총정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동시 《원수님의 전진길》, 서정시 《승고한 경외》, 수필 《김에 대한 생각》을 비롯한 작품들은 한순간의 후회도 없이 내 조국의 무장번영을 위하여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안병민을 바라는 학생소년들의 절절한 열정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시 《제일 높은 산》, 《나도 삼지연에 왔어요》, 감상글 《두사들 그 녀름 가슴에 새기고》 등의 작품들에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혁명의 만년초석인 백두의 혁명정신을 상징해 세워 영의 학생들이 우리 교실문학상을 받았다.
이들이 상작한 동요 《대원수님 그립습니다》, 동시 《해바라기 꾀미요》, 《12월의 밝은 밤》, 수필 《기적소리 불어오》 등의 작품들은 한순간의 후회도 없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사무치는 그리움과 깨끗한 총정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동시 《원수님의 전진길》, 서정시 《승고한 경외》, 수필 《김에 대한 생각》을 비롯한 작품들은 한순간의 후회도 없이 내 조국의 무장번영을 위하여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안병민을 바라는 학생소년들의 절절한 열정을

황주군 장천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생도 축하

황주군 장천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생도 축하를 위하여 장천리 주민들은 다양한 축하행사를 마련하였다. 주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그리고 촛불집회를 열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존경의 정을 나타내었다. 주민들은 또한 촛불집회를 열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존경의 정을 나타내었다. 주민들은 또한 촛불집회를 열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존경의 정을 나타내었다.

황주군 장천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생도 축하를 위하여 장천리 주민들은 다양한 축하행사를 마련하였다. 주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그리고 촛불집회를 열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존경의 정을 나타내었다. 주민들은 또한 촛불집회를 열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존경의 정을 나타내었다. 주민들은 또한 촛불집회를 열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존경의 정을 나타내었다.

광명성절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 첫 공연 진행

광명성절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2월의 봄입니다》가 14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예술단성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에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공연은 높은 사상에 충실하게 이루어진 무용무용과 노래, 민중의 마음을 담은 다채로운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공연은 높은 사상에 충실하게 이루어진 무용무용과 노래, 민중의 마음을 담은 다채로운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외국 손님들 제22차 김정일화축전장 참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외 및 국제기조대표부 성원들은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선군의 기치높이 주조 조선의 강성번영과 최후승리를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해외동포대표단들 도착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박용희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동포대표단과 최수봉제1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2차 동포대표단이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과 평양역에 회대표단과 최수봉제1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2차 동포대표단이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 가리사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 가리사 리사 김옥희가 14일 비행기

제22차 김정일화축전장 참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외 및 국제기조대표부 성원들은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선군의 기치높이 주조 조선의 강성번영과 최후승리를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 광명성절경축 제7차 전국소묘축전장 참관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이 14일 평양에서 열린 제7차 전국소묘축전장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선군의 기치높이 주조 조선의 강성번영과 최후승리를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인류의 다함없는 힘모와 축원속에 끝없이 만발하는 태양의 꽃

김정일화명명후 세계적으로 160여자의 축전, 전시회 진행, 김정일화에 16차에 걸쳐 원예박람회, 화초전시회에서 최고상들 수여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불세출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모신 불멸의 꽃이 세상에 태어난 때로부터 30년이 되었다. 김정일화는 조선혁명의 인류 자주위업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에 대한 만민의 열렬같은 힘모와 애복, 신뢰심이 낳은 위인상송의 꽃이다. 누리를 붉게 물들이며 년대와 세기를 이어 세계적인 꽃으로 꽃없이 만발하는 김정일화는 인류의 지성과 직관속에 최고의 명화로 떠날라루고있다.

지난 30년간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160여자의 김정일화축전, 전시회 가 진행되었으며 16차에 걸쳐 세계적인 원예박람회, 화초전시회에서 김정일화는 특별상, 금상상을 비롯한 최고상을 수여받았다. 김정일화가 계절과 지역, 기후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행성의 곳곳에 활짝 피어내고있는것은 탁월한 사상과 기강한 혁명실천

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인류 앞에 영원불멸한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힘모와 정이 더욱더 강렬해지고있음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혁명의 붉은기쁨 높이 불꽃이 피어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이되며 수령님께서 밝히고 가신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위하여 헌생을 초월치 않겠고, 위대한 인간에 대한 만민의 열렬같은 힘모와 애복, 신뢰심이 낳은 위인상송의 꽃이다.》**

김정일화는 사상과 명도, 혁명에 있어서 그 어느 명도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천출위업에 대한 전민적 애복같은 지평한 식물학자에 의해 주제 77(1988)년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태양의 존함을 모시고 세상에 태어났다.

김정일화가 태어난것은 탁월한 령도자, 가장 길출한 정치선수로 대한 만민의 열렬한 칭송과 호모심의 뜨거운 분출이었으며 세계원예계의 경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순결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멸의 꽃의 세태와 보급사업에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쳤다.

1988년 4월 중앙시물원에 현대적인 김정일화온실이 꾸러짐으로써 태양의 꽃에 대한 연구와 재배보급에서 전진이 일어났다. 1995년 6월에는 조선 김정일화김정일화위원회가 결성된데 이어 각 도별로 김정일화 김정일화위원회가 조직되어 전국적범위에서 재배보급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김정일화김정일화전시관이 2002년 4월 수도 평양의 충지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불멸의 꽃 재배와 보급사업의 중심지로

통틀어 일떠서고 최북단 온성지구로부의 분계연선의 최전 선마을에 이르기까지 조국방방곡곡에 김정일화김정일화온실을 꾸러져 태양의 꽃을 보다 광범위 키울수 있는 불일기기술적도가 돋보이게 갖추어졌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위인상송의 열기가 그대로 자양분이 되어 김정일화는 온 나라 가정과 일터에도 활짝 피어났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55돌을 맞으며 김정일화전시회가 열린 때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회대의 명절인 광명절과 국가적기념일들을 계기로 31차의 불멸의 꽃축전과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축전에 갖가지 장식을 다 바치였으며 수많은 외국의 명품과 해외명품들도 천출위업을 열렬히 칭송하며 정상단체로 하여금 꽃의 꽃을 축전장에 보내어왔다. 이와 함께 각 도에서도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불멸의 꽃전시회가 진행되어 온 나라에 축원의 꽃바다를 펼쳐냈다.

만민의 끝없는 지성의 세계가 그대로 담겨져있는 김정일화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이후에도 끝없는 그리움속에 더욱 만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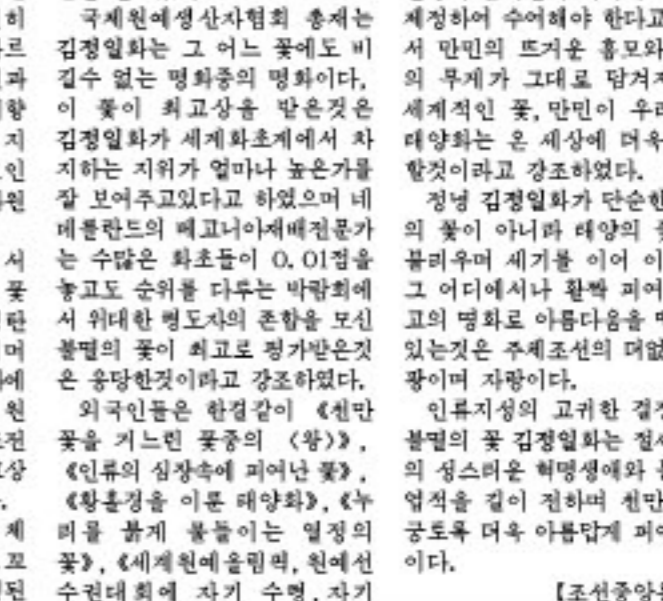
2012년부터 17차례에 걸치는 김정일화축전에는 6차에 가장 큰 중국 99평면세계원예박람회는 김정일화의 세계적지위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수십개 나라와 국제기구가 참가하고 수천종의 화초가 출품된 원예박람회에서는 김정일화가 최고상인 그랜드상과 상상이 수여되었으며 각국의 당, 국가, 정부수반들과 고위대표단원들, 명예손님들을 비롯한 110여만 명이 김정일화전시장을 찾았다.

김정일화는 2008중국상해 세계원예박람회, 2011서안세계원예박람회, 2012제네바세계원예박람회, 2014밴드 세계원예박람회, 2014핀란드 세계원예박람회, 몽골국제화초 전시회 등 원예박람회, 전시회 등에서 최우수전시품상, 특별상, 금상과 같은 최고상을 휩쓸며 수차례 세계원예계의 과목을 일으켰다.

국제원예생상학회 총재는 김정일화는 그 어느 꽃에도 비길수 없는 명화중의 명화이다. 이 꽃이 최고상을 받은것은 김정일화가 세계화초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여주고있다고 하였으며 네덜란드의 페고나이세베크문화는 수많은 화초들이 0.1점을 높고도 순위를 다투는 박람회에서 위대한 령도자의 존함을 모신 불멸의 꽃이 최고로 평가받은것은 유망한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천안꽃을 거느린 꽃중의 왕》, 《인류의 심장속에 피어난 꽃》, 《황룡경을 이룬 태양화》, 《누리를 붉게 물들이는 열정의 꽃》, 《세계원예의 열매, 원예선수권대회에 자기 수경, 자기



아버이 그 사랑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리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적이 깃들여있는 보통강백화점을 돌아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속에 빼놓지 않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즐겨찾는 보통강백화점은 위대한 장군님의 당과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종합적인 상업봉사지이다.

뜻깊은 광명절을 맞으며 우리는 백화점을 찾았다.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을 주는 백화점은 많은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다. 봉사자들의 열정적이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었다.

아버이 장군님의 합작자가 아려있는 승강기를 타고 우리는 먼저 백화점의 3층에 올라갔다.

특색있는 배편된 상품들의 수준이 실로 대단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명품, 명산들은 물론 외국명품에대한 수요가 높아서 이층도 붐비고 있었다. 상품들이 차차 있는 때를 호호하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봉사원은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그는 아버이 장군님의 애정을 되새기며 아버이 장군님의 크나큰 고교에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8년전 백화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백화점에 직접관도 만들어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 공간을 리용하여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도 붙여주고 충렬로, 때때로 어떤 상품이 있다는것을 알려주는 소개관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그날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백화점의 여러곳에 단편된 상품소개판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것까지 가정용품들이 그처럼 봉사자들에게도, 손님들에게도 인기있는 기능성 화장품들이 짝 들어간 화장품대형에도 소개되어 펼쳐져 나붙어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애에 이르렀는 상품 소개판앞에서 우리는 선뜻 말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우리 눈앞에 2층 중심홀에 정중히 놓인 아버이 장군님의 영상사진은 인제였다. 백화점 상을 찾으신 그날 봉사활동에서 나서는 분배를 일일이 가르쳐

주시며 귀중한 시간을 비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느니라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우리 가슴은 뜨겁게 젖어왔다.

승업한 감정에 휩싸여있는 우리에게 리얼리티제인은 몇몇건이 한 나라 가지간단한 백화점의 화장품대형 돌아보고 조선의 화장품들이 정말 많다. 오호 여기에 왜보니 조선의 화장품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진것을 알았다. 이런 자부심을 안고 우리는 백화점의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일면서 눈에 뜨인것이 상품 소개판이었다. 리얼리티제인은 감동받은 어조로 이야기하였다. **《저 상품소개판에는 우리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가 아려있습니니다.》**

8년전 백화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백화점에 직접관도 만들어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 공간을 리용하여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도 붙여주고 충렬로, 때때로 어떤 상품이 있다는것을 알려주는 소개관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그날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백화점의 여러곳에 단편된 상품소개판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것까지 가정용품들이 그처럼 봉사자들에게도, 손님들에게도 인기있는 기능성 화장품들이 짝 들어간 화장품대형에도 소개되어 펼쳐져 나붙어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애에 이르렀는 상품 소개판앞에서 우리는 선뜻 말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우리 눈앞에 2층 중심홀에 정중히 놓인 아버이 장군님의 영상사진은 인제였다. 백화점 상을 찾으신 그날 봉사활동에서 나서는 분배를 일일이 가르쳐

생각하지않고 나오는것들이라고 하며 리얼리티제인은 자랑력이 제일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나라에 온 귀족을 주면서도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보통강백화점, 어느 단원이나 수병의 유호관철, 당정책옹위전에서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간다면 이 불치병 부장조국건설에 뚜렷한 자국을 남길수 있다.

백화점을 나서는 우리에게 리얼리티제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이야 백화점에 들어서면 인민들이 락을 보는 백화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가라고 그토록 절절히 당부하시던 아버이장군님의 음성이드러오는것만 같고 우리 천수님께서 이제라도 물고 백화점에 찾아 오시면 인민들이 좋아하는가들이아닌것만 같아 마음이 울렁이군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아버이장군님의 사람이 차차 더 따뜻하고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아져나오는 보통강백화점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우리 장군님과 우리 천수님의 그날의 당부담을 짐에 새겨놓고 보통강백화점의 봉사자들은 인민을 위한 복부의 길을 잘못이 이어가고있다.

이런 이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다 수병들이 주었다라고 행복을 노래했건만 천수님께서 떠나고 되고 후일 하는 때를 장군님의 향성의 열기처럼 인민은 인민이라고 하며 노복부대 인민은 오늘날도 매일도 영원히 아버이시랑을 깊이깊이 전해갈 것이다.

본시기자 오은별

1995년 1월이었다. 온 나라 천안군의 가슴마다에 민족의 대극을 당한 꽃봉오리처럼 마르지 않고도 계속되는배우 리들이 사면팔방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고립압박의 포위망을 뚫어준 준엄한 시기에 우리 시단에서는 한편의 명가사가 나왔다.

《정일봉의 우리소리!》

제복부터 황으로 가슴울렁하고 배 구절구절에 제국주의자들에 쏟아지는 불바람이 양뿔한 시어들과 주구장은 명구들이 번뜩이는 노래가사를 쓴 사람은 김일봉이라는 최고령도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강고한 항일혁명투쟁시절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어린시절부터 준엄한 시련속에서 백두산의 기고강과 기쁨을 체험한 위대한 혁명가로서 성장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시인 백두산의 천성이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시창작의 나래를 활짝 펼친 행운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창작한 가사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손수 가필도 해주시고 《잘되었습니다》이라는 사랑의 친필도 새겨주시였으며 또 어떤 때에는 노래가 좋다고, 어떤 노래를 읽어도 단 들리고 뜨겁게 고무해주셨다.

혁명전반의 시인이자 혁명가라는것을 잊지 않고 혁명가로서 문학의 꿈을 꽃피는 자기에게 인생의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겨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호모의 마음을 안고 시인은 가사 《삼지연의 새벽길》, 《만년에 빛나라 김정일시대》를 비롯한 수많은 시작품을 썼다.

그런데 아무리 쓰고 써도 시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이 세상에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마련해주어 우리 인민을 보람있게 내세워주시려고 늘 마음써 오셨습니니다.》**

지난 2월 초 어느날, 백두산 밀정지구는 명절처럼 흥성이었다. 장광봉사관리의 인공분과 봉사자들이 갖가지 로비들을 준비해가지고 소백수미봉주진들을 또다시 찾아왔었다.

김정주, 전신시동무를 비롯한 봉사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유명한 장광봉사관리의 식당에서만 맛볼수 있는 로비들을 마추는 주민들의 얼굴에서는 밝은 웃음이 지워질줄 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이 세상에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마련해주어 우리 인민을 보람있게 내세워주시려고 늘 마음써 오셨습니니다.》**

지난 2월 초 어느날, 백두산 밀정지구는 명절처럼 흥성이었다. 장광봉사관리의 인공분과 봉사자들이 갖가지 로비들을 준비해가지고 소백수미봉주진들을 또다시 찾아왔었다.

김정주, 전신시동무를 비롯한 봉사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유명한 장광봉사관리의 식당에서만 맛볼수 있는 로비들을 마추는 주민들의 얼굴에서는 밝은 웃음이 지워질줄 보였다.

백두산을 안고 사는 수도의 봉사자들
장광봉사관리 국에서
정거리가 흥겨운 완공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육식거리의 식당에서 봉사하는 하나하나의 음식들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한 아버이 사랑이 깃들여있었다.

하루에 수도시민들은 물론 각지의 근로자들이 장광봉사관리를 찾아와 우유한 민족로리와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육식들을 봉사받고 기뻐하는 모습은 볼 때마다 원공국인들과 통일원들의 가슴은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뜨겁게 끓어올랐다. 그와 함께 하나의 생명이 울려왔다. 백두산밀정지구 주민들의 생활에 당의 은정이 가장

면시 병원을 4층짜리 건물로 옮겨주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는 환자치료에 필요한 설비들도 마련해주는 등 안방병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환자들에 대한 면시부무정신을 지니고 이끌라 을애는 안방병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깃들여있습니다.

선명선으로 늘 바쁜 속에서도 안방병원들은 단조로운 피어있던 안방병원들이 넓었다는것을 알고 환자들을 위한 일인데 그 무엇도 아끼는가고 하

면시 병원을 4층짜리 건물로 옮겨주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는 환자치료에 필요한 설비들도 마련해주는 등 안방병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환자들에 대한 면시부무정신을 지니고 이끌라 을애는 안방병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깃들여있습니다.

선명선으로 늘 바쁜 속에서도 안방병원들은 단조로운 피어있던 안방병원들이 넓었다는것을 알고 환자들을 위한 일인데 그 무엇도 아끼는가고 하

정영철

